

'97동남아시아 전자공업의 동향 조사 보고서(II)

조 사 부

각국별동향

1. 한 국
2. 대 만
3. 중 국
4. 홍콩
5. 베트남

1. 한 국

1. 일반개황

1) 경제성장둔화, 경기침체

작년까지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반도체, 화학제품, 철강 등의 수출이 현저히 둔화하고 또 설비투자의 감소 등에 의해 경기가 침체

본고는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 부품운영위원회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한국, 대만, 홍콩 등 10지역에 동남아시아 조사단을 파견하여 각국의 기기업체 정부관계기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한 보고서를 본회에서 번역 게재한 것임.

되었으며, 금년에 들어서도 이러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바닥세를 보이고 경제성장율은 둔화해 대외무역수지에서 적자폭이 거액화되고 있다.

또한, 중견재벌 수개사의 도산 및 불량채권에 의한 은행경영의 위기가 현재화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금후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원화절하기조하에서의 수출의 회복과 설비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 구조적으로 전환기에

직면

한국은 '95년에는 1인당 GNP가 1만불을 상회하고, 작년에는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에의 가맹이 승인되는 등 선진국의 진입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까지 재벌주도로 오직 확대노선만을 걸어와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과 '80년대부터 매년 2자리의 임금상승률에 의해 오늘날의 노동코스트는 일본의 약 60%에 상당하고 구미의 임금수준과는 비슷한 정도에 까지 이르러 있으며, 또 저임금 국가로 부터의 격렬한 무역경쟁과 해외이전 및 엔저에 의한 일본산업의 경쟁

력 회복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재벌기업은 이제까지의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활을 걸고 그룹기업의 통폐합, 인원삭감 등 리스트럭처링을 단행하고 있으며, 적자사업으로 부터의 철수도 검토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은 한마디로 구조변혁,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된다.

2. 전자공업의 동향

1) 세트의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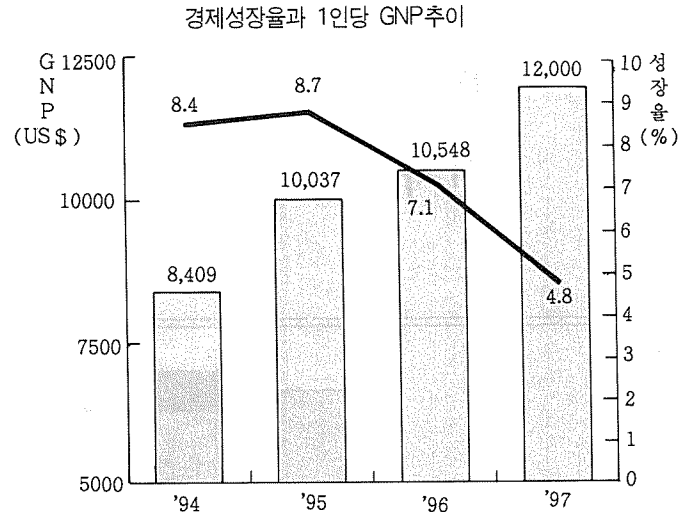
(1) AV기기 - 계속되는 해외로의 이전

주요 AV기기의 국내생산은 해를 거듭할 수록 감소하고 있다.

AV기기의 생산은 메이커의 시장전략에 의한 해외에서의 생산전개, 즉 수요지역에서의 생산공급(Made in market)도 있으나, 해외로의 생산이전의 큰 이유는 국제경쟁력 확보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는

- ① 노동임금의 상승에 의한 코스트 압력
- ② 후진국 등으로 부터의 추격과 저가격화 경쟁
- ③ 예전에는 순환적으로 엔고·원화절하가 발생해 호황이었던 시기도 있었으나, 일본 메이커의 해외전개 및 작년이후 엔저에 의한 경쟁력의 부활 등으로 인한 국내생산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비고 : '97년 제1/4분기의 GNP성장률은 5.0%

오디오 제품에서는 '90년을 전후하여 강렬한 생존 경쟁에서 도태한 것들은 대부분 해외로 이전되어 현재는 몇몇 고급기종만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C-TV, VTR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샴시와 부품을 조달하여 해외에 보내고, 해외에서 완성품을 생산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완성품 생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 정보통신기기 - 생산 급속히 확대

전술한 대로 AV기기의 국내생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기기의 시장은 급속히 확대해 각 기업은 빠짐없이 생산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통신기기중 코드레스폰은 가격경쟁

이 심해 해외생산이전이 행해졌으나,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한 이동체통신기구나 인터넷, PC통신 등 정보관련기기의 생산은 증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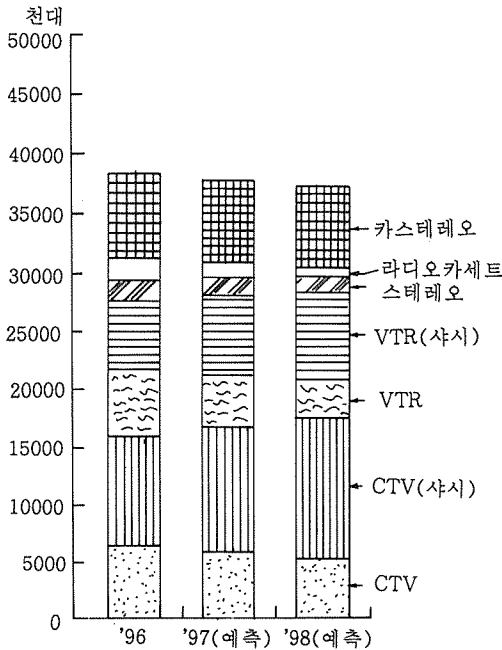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중기전망에서는 한국의 정보기술산업이 2001년까지 매년 19.6% 신장해, 동년까지 약 1조 3,400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민 모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다.

2) 전자부품의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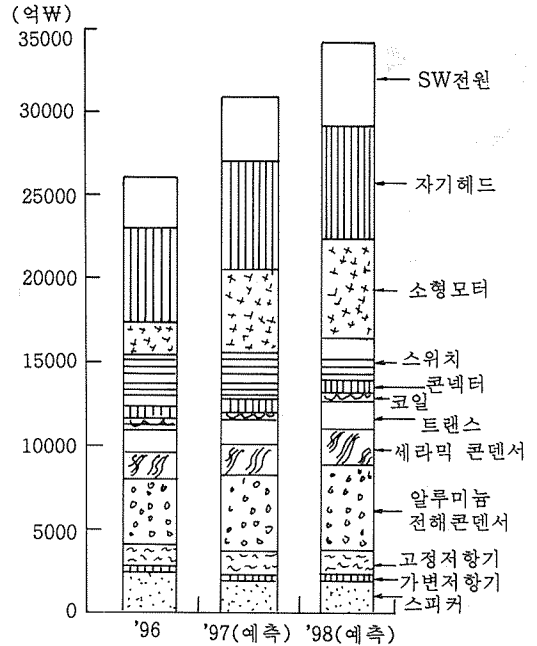
일본계 부품 메이커는 ASEAN, 중국 등에서 생산거점을 구축·강화하고 있어, 한국내 생산은 주로 내수용에 머물러 있다.

주요 부품에서의 일본계 메이커의 생산비율은 '94년에는 약 39%였으나, '95년에는 약 20%로 감소하였고, 생산품목중에서는

주요AV기기 생산추이



주요전자부품 생산추이



유일하게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만이 7.3%로 높고, 다른 품목은 모두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위치 및 스위칭 전원은 100% 한국메이커에서 생산하고 있다.

또, 노동집약성이 높은 부품의 생산은, 중국이나 ASEAN으로의 생산이전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내 생산은 설비집약형 부품, 면실장부품 등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으로 품목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3. 금후의 과제

AV기기분야에서의 국내생산의 공동화로 이를 대신할 정보통신,

하이테크분야에의 주력이라고 하는 한국전자공업의 구조는 일본의 그것과 실로 동일한 것이다.

단, 이제까지 한국은 Key technology, Key device의 대부분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체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자부품 및 주변산업의 육성 강화가 필요하며, 한국이 금후 세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립해 가기 위해서는 기초 기술을 포함한 기술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가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까지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탈피해 금후의 국제

화, 자유화를 향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변혁해 갈 수 있는가가 커다란 관건이다.

반도체에 있어서는 메모리 의존에서 벗어나 로직, ASIC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멀티미디어시대의 정보의 「창」으로써의 액정, PDP 등에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도입책, 만관 일체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추진, 첨단기술 획득을 위한 기업매수, 기술제휴 등도 활발히 행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기술수준에 비

하여 아직 갭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대 만

1. 일반개황

— 산·학·관 공동으로 하이테크화를 가속화해가는 대만산업 —

'96년의 경제성장율은 대륙관계의 긴장과 국내금융문제 등의 영향을 받아. 민간투자 및 소비의욕이 저하해, '95년의 6.0%, 예측치인 6.2%를 밑도는 5.7%의 성장에 머물렀다.

'97년에는 대만의 무역도 정보기기관련제품을 중심으로 순조로이 회복해 수출증가율 9.7%, 경제성장율 6.0% 이상을 예측하고 있다(경제건설위원회).

한편, 통신서비스의 자유화 등 규제완화도 실시되고 있어 민간투자의 활발화 및 민간소비의 성장회복도 기대되고 있다.

2. 산업구조의 변화

—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행되는 대만 —

최근 수년간에 걸쳐, 대만의 전통산업의 지위가 저하한 반면, 자본기술집약형 산업 및 서비스업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대만경제를 받쳐온 방직·목재·가구·플라스틱 등의 전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그 중요성이 저하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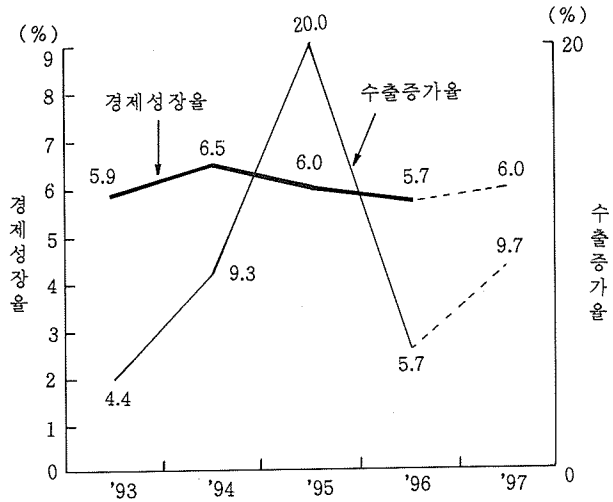
나, 석유화학·일렉트로닉스 등의 하이테크형, 기술·자본집약형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노동생산력의 상승 그리고 외국투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순조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이테크화가 특화된 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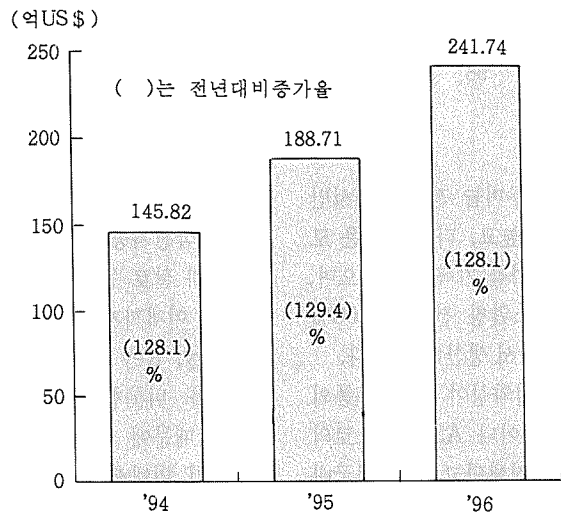
중심의 정보관련기기제품·반도체 및 정밀가공·화학재료 등에서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이들 제품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1) 전자왕국의 금후의 전개

경제성장율, 수출증가율



정보기기관련제품생산액



— 성장을 지속하는 정보기기 산업 —

정보기기관련제품의 생산액은 '96년 이후 매년 2자리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96년의 생산액은 최초로 200억불을 돌파한 242억불을 기록하였으나, 이중에서도 노트북 PC는 데스크탑 PC에 이어 '96년에 들어서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2) 산업정책

— 1997년, 대만 하이테크 과학공업단지 가동개시 —

산·관·학 공동에 의한 연구개발이 행해지기 쉬운 양호한 환경과 각종 우대조치가 도입되어, 대만 하이테크 산업의 중핵적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新竹과학공업단지(新竹사이언스 파크)와 동일한 단지가 대남지구에 가동되고 있다.

대만의 하이테크산업육성정책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으며, 고도기술을 도입, 축적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전자공업의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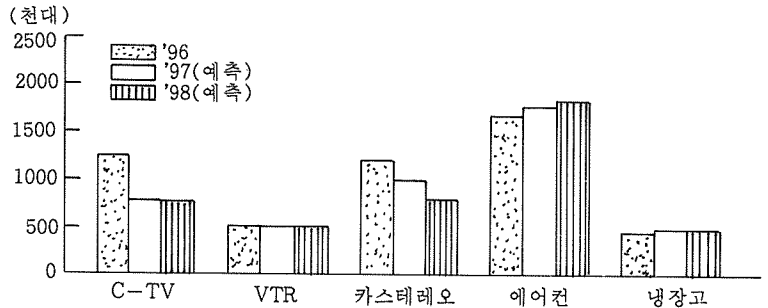
(1) 주요기기의 생산상황

— 해외 이전이 진행되는 AV 기기/급성장하는 노트북 P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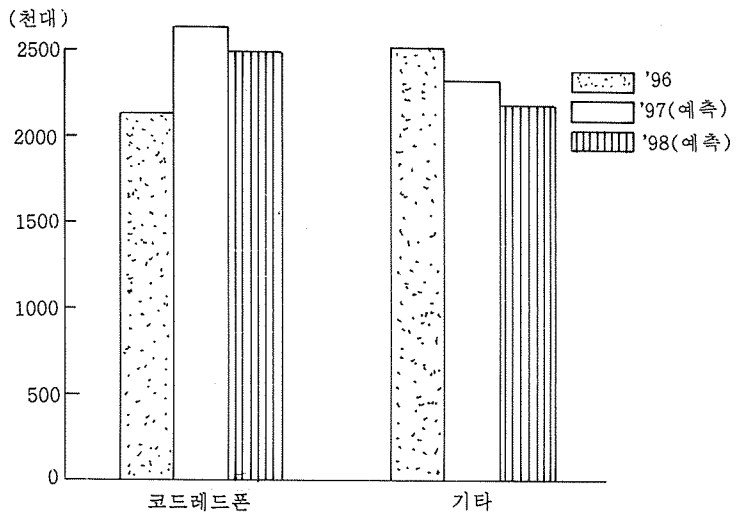
① 가정용 기기

인구 2,150만명, 세대수 600만 세대의 대만시장은 가전제품의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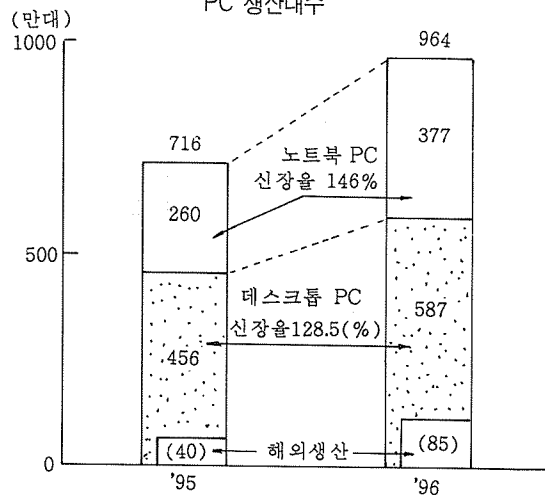
가정용기기의 생산대수



전화기 생산대수



PC 생산대수



급율이 높아 현재 포화상태로, TV·비디오 및 에어컨 등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용기기의 신장은 정체된 감이 있다.

외국계·현지 가전메이커는 대륙,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해외이전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중국 및 동남아시아도 시장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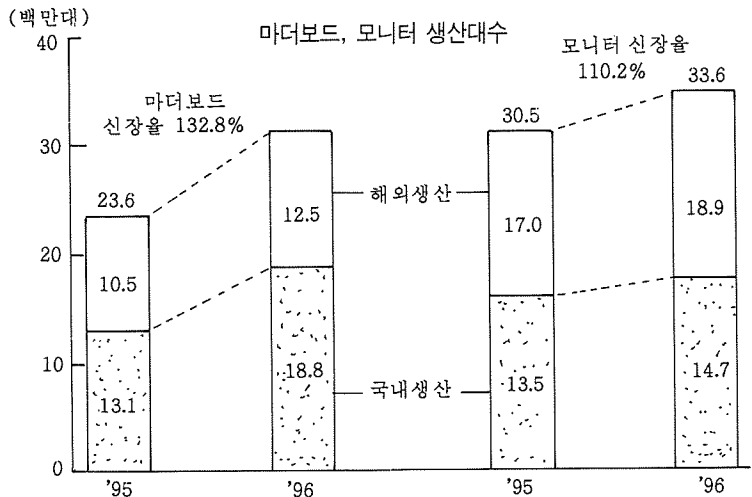
② 통신기기

급속히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휴대전화는 수입품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코드레스폰 및 다기능 전화기는 수출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③ 컴퓨터 및 주변기기(정보기기관련제품)

A. PC

'96년의 PC생산대수는 964만대(데스크탑PC : 587만대, 노트북 PC : 377만대)이고, 국내생산



은 879만대이다.

전년대비 신장율에서는 데스크탑PC가 128.5%, 노트북PC가 146%로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해외생산비율은 데스크탑PC가 '96년 실적에서 약 14%의 신장율을 보였다.

B. 마더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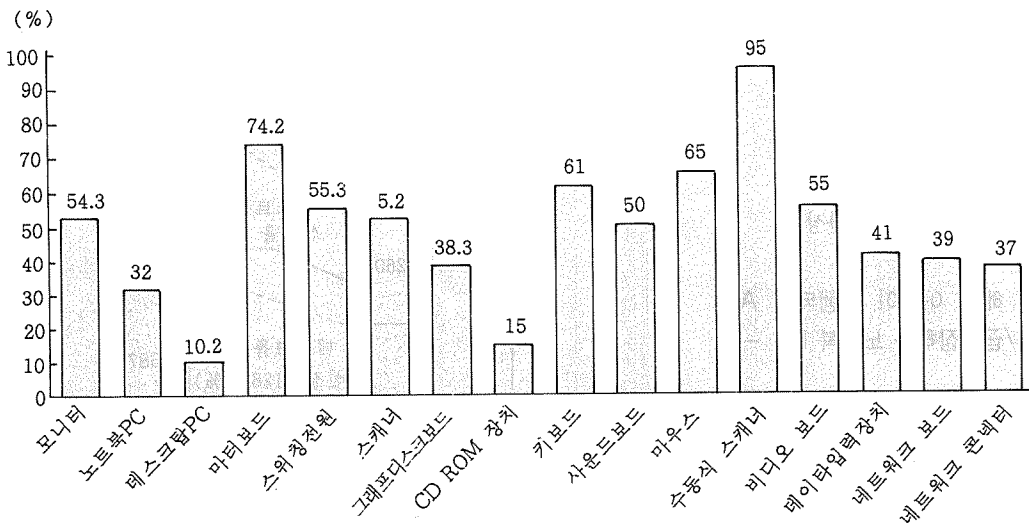
'96년 국내생산대수는 1,882만

대로, 여기에 해외에서의 생산을 더하면 3,132만대로 세계 점유율은 74.2%에 이른다. 금후 마더보드의 생산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C. 모니터

'96년 국내생산대수는 1,470만대이고, 해외생산은 1,890만대로 합계 3,360만대를 기록해 세계 점유율은 53.4%를 점하고 있다.

《1996년 세계시장점유(%)》



모니터도 마더보드와 마찬가지로 금후의 증가분은 해외생산이 차지할 것이다.

D. 주요 PC관련제품의 세계 쉐어

'96년 PC관련제품에 있어서의 대만의 세계 쉐어는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핸디 스캐너의 95%를 비롯해 과반수 이상의 쉐어를 점한 제품이 9개 품목이나 되어 대만의 정보기기분야의 강세를 말해주고 있다.

(2) 전자부품의 생산상황

— 전환기를 맞이한 부품생산 —

AV기기의 해외이전 및 내수를 주도하는 가정용기기의 신장은 정체된 감이 있어, 이 분야에서의 부품수요의 신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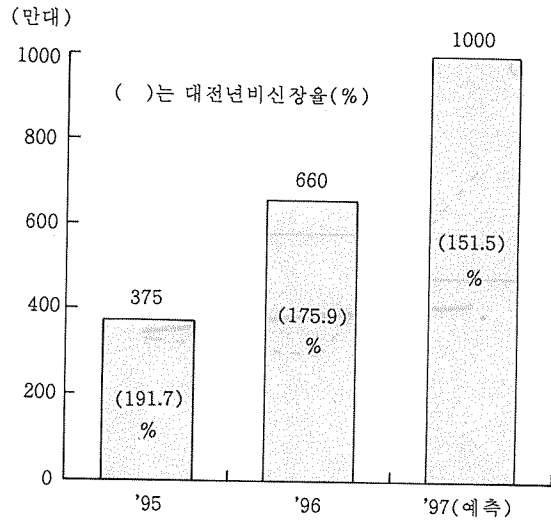
하지만, 정보기기관련제품의 생산은 해외생산분을 포함해 세계 톱 클래스의 위치에 있어, 이 분야에의 대응을 위해, 각 부품메이커는 국내에서의 개발 및 해외에서의 생산체제 강화를 추진해 가고 있다.

— 현지부품메이커의 활동 활발 —

조사대상 14개 품목중 일본계 부품메이커의 생산이 50%를 초과하는 품목은 '94년의 5개 품목에서 '95년에 4개 품목, '96년에는 3개 품목(자기헤드, 소형모터, 가변저항기)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한편 현지 부품메이커는 하이엔드 부품에의 대응 강화 및 다품종·코스트, 스피드에의 대응을 무기

CD-ROM장치생산대수



로 활발히 그 활동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후 대만에 있어서의 전자부품의 생산은 기기 메이커의 기술전개, 해외이전의 상황 및 부품조달루트 여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특기사항

— 대만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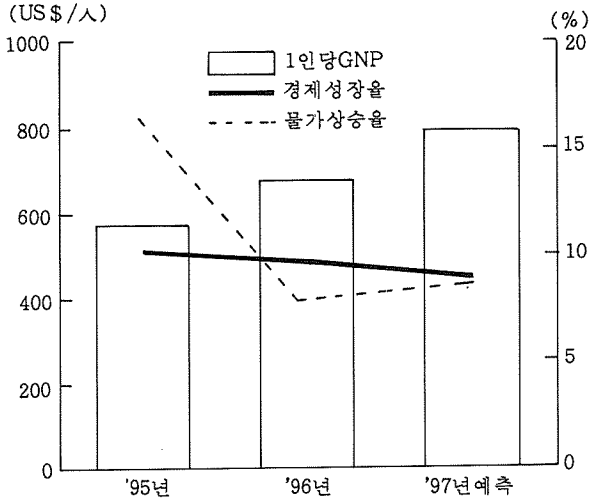
대만과 중국의 긴장은 금후 양국의 동향에 주목을 요하지만, '96년 후반부터 대만의 대륙정책은 문화·무역교류에 있어서는 활발히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중국에대한 직접투자가 과거 5년간 대만의 전체 대외 직접투자의 43%에 달하는 등 과도한 의존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계감에서 중국에의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복건성도문(아모이)에서는 외국투자의 60%가 대만으로부터의 투자로, 대만은 공업단지를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다.

— CD-ROM 장치의 생산, 급성장 —

대만 컴퓨터산업에 있어 멀티미디어 관련부품의 성장은 중요한 기술적 비약으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CD-ROM 장치이다. CD-ROM은 '96년에 생산대수가 600만대(세계 시장쉐어 15%)를 넘어, 일거에 CD-ROM 장치의 중요한 생산지로서 약진하고 있으며, '96년 대만의 CD-ROM 생산대수의 약 30%는 해외생산이 차지하고 있다.

	'95년	'96년	'97년(예측)
1인당GNP(US\$)	576	677	791
경제성장률(%)	10.2	9.7	9.0
물가상승률(%)	17.1	8.3	9.0



3 중국(전제)

1. 일반개황

'92년부터 '95년까지 2자리성장을 달성한 중국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 이면에 경제적인 외곽도 발생해, 이에 대응키 위하여 '95년에 인플레이 억제책, 농업진흥책, 국유기업개혁을 행하였다.

'9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9.7%로 약간 저하하였으나, 농업생산은 사상최고를 갱신하고, 외환보유고 1,050억불로 1년에 300억불이 넘는 대폭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각종 코스트 증가요인에 더하여 세금문제가 현실화하기 시작하자 외국자본의 투자의욕이 감퇴되었고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도 32%나 감소하였다.

제9차 5개년계획의 2년제가 되는 '97년에는 경제성장률 9%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92년부터 '94년에 걸친 급격한 외자도입 보다 국영기업옹호정책을 염두에 둔 산업정책에 근거한 선별과 제한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으며, 금년 7월의 “홍콩반환”, 10월의 “공산당 대회”, “WTO가맹문제” 등 경제보다 정치에 역점을 두고 “정치해”라고 말할 수 있다.

2. 투자상황의 변화

1) 정책의 변화

외자우대책에 대한 국영기업측과의 밸런스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외화보유고도 대만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함으로써 수출일변도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외자도입에 관해서는 '94년의 산업정책요강과 '95년의 외국기업 투자방향지도 잠정규정에 의거 선별과 제한의 시대에 들어가 있다.

중국정부는 국영기업과 외국기업과의 격차시정을 위해,

- 수출설비의 면세철폐와 유예기간
- 위타가공무역의 은행보증금 대장제도

- 외화관리제도의 변경
- 외국인 취업관리규정

등 외자우대조치를 수정함으로써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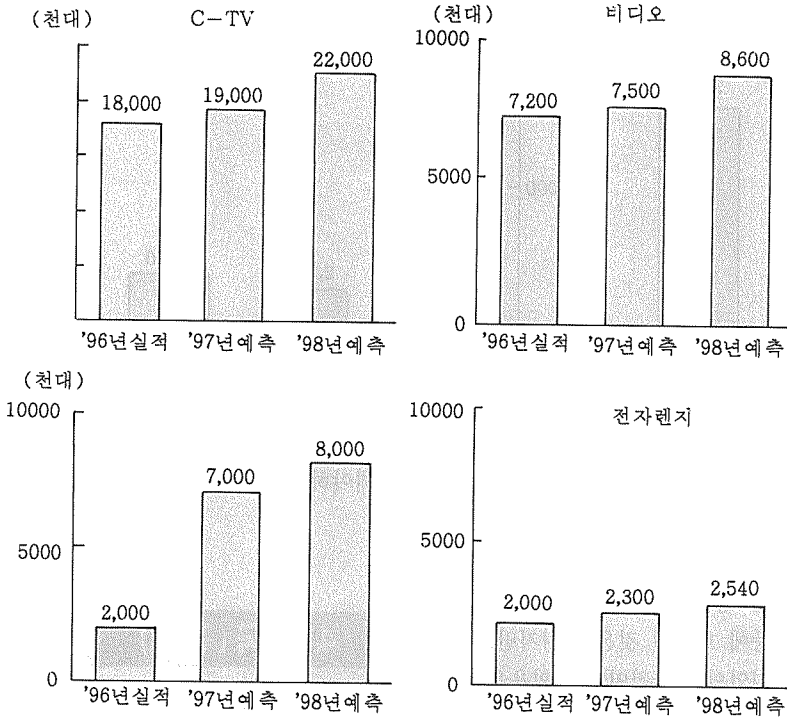
신규외국투자에 대해서는 중서부에서의 개발유도가 행해지고 있으며,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WTO가맹을 앞두고 5개의 경제특구를 폐지한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2) 지역격차 문제

인건비의 양등은 후속투자를 저지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들면 대련공업단지는 50%가 비어 있으며 건설도중 방치된 빌딩도 많이 보인다.

인건비의 인프라코스트 증가(기숙사, 식비의 80%가 회사부담), 개인코스트 증가(보험, 고용기금을 합쳐 62%)가 현저하며, 현재 북경·대련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곳이 분당 0.12원(2엔), 월당 1,400원(20,000엔), 평균 1,800원(25,000엔)이고 본인의 실지수령액은 대략 평균인건비의 절반정도이다. 또 금년 5월

(주요기기의 생산상황)



부터 실시된 주 2일휴무제, 주 40시간 노동도 실질적인 코스트업 요인이 되고 있다.

3) 전자산업의 동향

전자공업연감이 매년 10월에 발행되고 있다. 이것은 전자공업부 산하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작성된 통계로 자본형태에 따라 국영, 독자, 합작, 위탁생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각각의 정보파악이 곤란한 점도 있어 절대치의 파악이 어려운바, 금후는 시계열에서의 변화, 용도(기기)의 변화에 대한 파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주요기기의 생산상황
'97년은 메이커의 도태가 진행되어 '97년과 비교하면 탐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메이커별로는 그 격차가 점차 크게 벌어지고 있다.

① C-TV : 도태의 결과, 장흥(6,000천대), 금가(3,000천대) 및 TCL(1,500천대)의 순으로 10개사 정도가 남아 있다.

② VTR(VCP) : 드래곤 프로젝트(정점공장육성)는 계획미달이다. VTR의 판매부진으로 6개월의 재고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유는 소프트와 세트 모두 비교적 비싸기 때문인데 세트의 가격은 중국제가 2,500~3,000원이

다. 도표의 그래프는 중국내 판매용에 더하여 하남지구에 있어서의 일본계 메이커의 생산(위탁생산 포함)을 합친 숫자이다.

③ VCD : VCP를 대신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S/W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세트의 가격도 1,000원 ±200원으로 저렴한 것도 호조건이다. 신과, 애다등 중국 국내 메이커가 강하며, 메이커수는 200개사를 넘고 있다.

④ 에어컨 : 생산능력은 2,000만대를 넘어 세계수요의 총수에 가깝다. 중국의 실제수요는 이 숫자의 1/3정도로 추정되며, 재편·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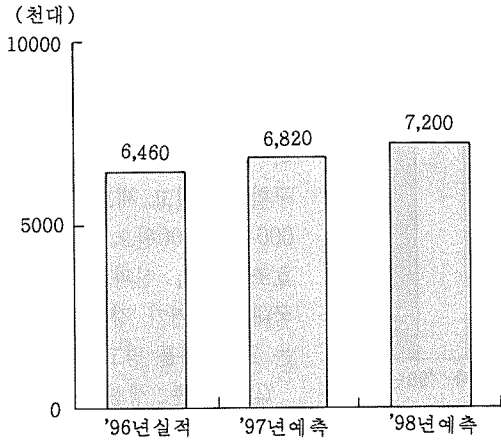
⑤ 이동체통신 : 휴대전화는 모토롤라의 장기전략(인프라 중심)에 의한 대투자로 기지국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도 시작되고 있으며, CDMA 방식도 금년말부터 실험을 개시할 계획이다. 모토롤라에 이어 에릭슨, 지멘스, 노키아 등이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대마켓이 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자부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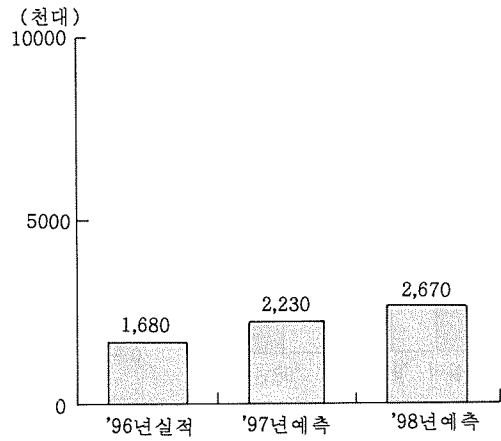
중국 전자공업부의 전자과기정보연구소에 의하면 중국전자산업은 '96/'95년에 수량베이스로 20%, 금액베이스로 18%, 신장하였으며, '97/'96에는 각각 '96/'95 이상의 신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 구성비는 산업기기 30%, 가정용기기 30%, 부품 40%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계 메이커의 동

에어콘



PC(완성품만)



향은 AV의 부진에 의해 CRT를 비롯해 크게 침체되어 있다. 중국 국내용 부품수요는 국내메이커의 생산 및 판매가 불안정하고 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어 당초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화된 일부 아이템은 국내의 빠르고 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생산품목에도 변화에의 대응이 요구되며, 중국시장용 생산에는 12억명이 넘는 잠재적 거대시장을 현재화하는 노력이 기대된다.

PC에 있어서는 현재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일본계 반도체의 진출도 이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부품수요를 한기시킬지도 모른다.

(3) 일본계 이외의 전자부품기업의 동향

중국,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의 중국계 사회는 「4개의 중국」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을 정도이며,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부터의 중국진출은 상당히 왕성하다.

품질적으로는 아직 뒤떨어지지만 중국제부품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부품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목욕 주목해 둘 필요가 있는바, 외자에 대한 규제외국기업의 투자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만은 여전히 투자를 늦추지 않고 있다.

(4) 기타

① 중국이라고 한마디로 말해도, 동북(대련, 북경, 천진), 화중(상해), 화남에서는 행정적인 차이가 많아 법제도 및 세계제도의 적용이나 운용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② R&D기능에의 대응을 위해 부품의 설계를 중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기메이커가 있으나, 일본인 기술자의 중국주재 경비가 막대해, 현재로써는 중국인 기술자를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파견

해 R&D기술을 습득하는데 만족해야하는 상황이다.

4 중국(홍콩)

1. 일반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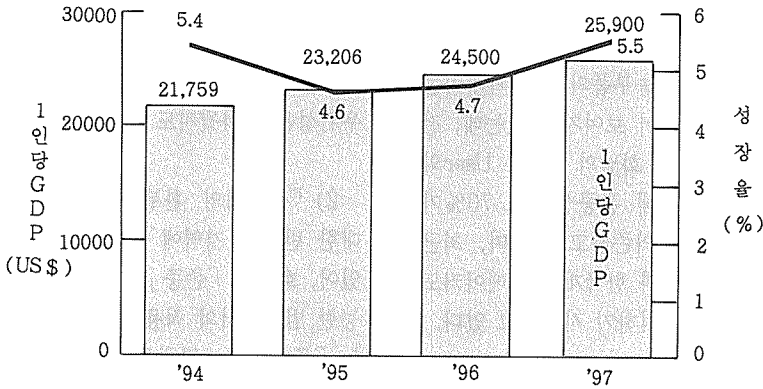
1) 소비회복과 체제안정기대

'96년의 홍콩경제는 다른 아시아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의 신장율이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은 5.0%, 예측치를 하회하는 4.6%에 머물렀는데, 이는 주식·부동산시세의 회복과 실업을 저하에 의해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민간 소비가 최악기를 벗어나, 전년의 1.0% 증가에서 4.0%로 복조한 것이 기여하였다.

금년에는 「반환후 50년간의 체제유지」 및 「1국2제도」하에서 복조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어 경제성장률은 5.5% 정도의 높

	'94년	'95년	'96년	'97년
1인당 GDP	21,759	23,200	24,500	25,900
경제성장률(%)	5.4	4.6	4.7	5.5
소비자물가상승률(%)	8.1	8.7	6.0	

경제성장률과 1인당GDP추이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실업률(%)	2.0	1.8	3.3	2.8	2.7

은 수준이 예측된다.

국내총생산에 있어서의 1인당 GDP는 계속 순조로이 성장해 '97년에는 25,900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91년과 비교해 1.83배 증가한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의 감속과 중국에서의 엄격한 인플레이억제책에 의한 상승저하 및 역내의 임금상승을 억제에 의해 '95년의 8.7%에서 6.0%로 저하하였으며, '97년에는 7.0% 정도로 개인소비의 복조와 함께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재수출

홍콩의 최대무역상대국인 중국에의 수출이 완만하나마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무역량이 확대되면 그에 따라 홍콩의 재수출('95년 수출전체에 점하는 재수출 비율은 83%)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홍콩의 자체적인 수출도 선진국의 호황에 의해 10%정도 증가하는 등 수출은 여전히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노동환경

1) 임금상승도 높은 수준

'95년까지 계속된 2자리 임금상승율도 경제성장률과 GDP의 슬로우다운에 의해 약간 안정세를 보여 '96년의 7.0%에 이어 '97년에도 8.0%의 1자리 상승이 예

상되며, 심천시가지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제조업의 이행은 전자공업에서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2) 실업률 회복기조로

홍콩에서는 '96년후반의 경기회복과 함께 산업·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도 회복되어 2.8%의 신장을 보였으며, '97년에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주요기기의 생산동향(중국 화남지역 포함)

1) 영상기기분야에서는 C-TV가 중국전체로 20,000천대 가까이 되어 생산과잉상태에 있다. 화남사천장흥 유한공사에서의 5,000천대를 필두로 화남지역에서는 TCL, 경주가 쉐어를 늘려 중국기업이 약진하였으나 반면, 홍콩기업인 GREAT WALL, KONG WAH야는 수량을 줄여 7,100천대의 실적에 그쳤으며 '97년에도 7,400천대로 4% 정도의 신장에 머물 전망이다.

2) 비디오 CD가 VTR의 부진과 관계없이 급확대하고 있어, 중국전체로 '96년 4,000천대, '97년에는 6,000~8,000천대가 예측되며, 부품발주베이스로는 10,000~12,000천대라는 정보가 나올 정도로 활황을 보이고 있는 바, 세트가격 800~1,600원, S/W가 7~15원으로 적당한 가격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3) 오디오는 작년의 불황시대에 세트가격이 대폭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현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홍콩기업이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자연도태가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현지 로칼브랜드에서 일본계 OEM브랜드 생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트가격의 하락은 일본계 OEM브랜드 생산 모델에 있어서도 저렴한 로칼 부품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게 해, 대만·중국계 로칼부품이 조달가능한 화남주변지역으로 생산을 불러들이고 있어 '97년에는 전체적으로 10%를 초과하는 신장이 기대된다.

4) PC 및 주변기기의 생산도 크게 신장되고 있는데, '97년에도 미국의 재고감소로 인한 중국의 생산증가가 기대되어 20~30%의 신장이 예측된다. 한편, 대만 모니터 메이커의 화남지역으로의 이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만이 갖고 있는 54%셰어의 60%정도와 화남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프린터의 생산도 일본계를 중심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바, 홍콩, 염천지구의 하이테크기기화는 더욱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천대

	'96년	'97년 예측	'98년 예측
C - TV	7,130	7,420	7,530
스 테 레 오	13,500	14,430	15,670
프 린 터	7,000	8,600	9,000
칼라모니터	3,800	5,500	7,900

4. 부품의 수주동향

'96년에는 경기가 후퇴되었었기 때문에, '97년에는 총체적으로 5~10%정도의 신장이 기대된다.

AV의 가격하락에 따른 부품의 가격인하요구와 로칼부품과의 결합확대 그리고 OA기기의 확대에 따른 고성능부품의 수요확대라는 2극화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화남의 일본계 User의 확대에 의해 홍콩상권의 70%가 일본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과 한국계 부품메이커도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5. 홍콩 IPO

홍콩 IPO의 기능은 중국에 대한 구매·지불부문의 창구로써 '97. 7. 1이후 더욱 그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오디오메이커 등에서는 홍콩 OEM메이커에 의한 로칼부품의 채용 경험으로 그 품질에 자신을 갖고 있으며, 제고스텝으로써 중국생산용 뿐만 아니라, 탈엔을 목표로 한 토탈구매로써 반환성품·기관 ASS'Y를 포함한 부품이 타시장에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R&D센터를 설립해 로칼부품조사·육성 그리고 그에 맞는 세트 설계 등을 행하고 있다.

6. 결론

1) 「반환후」의 경제면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홍콩측의 종합적

인 의견에서도 「50년후라면 몰라도 향후 4~5년동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의 부진으로 인해 화남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경제특별구의 「폐지론」이나 「외자우대 정책 수정론」이 논의되고 있어 위탁가공무역기제로써의 광동성과 홍콩의 연계에 의한 우위성은 약화될지도 모른다.

2) 「증치세의 환부율 감소」에 대한 반응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화북은 「존중」 화중은 「가능한 범위에서의 적용」, 화남에서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부의 불이행」이나 「환부금의 선상환에 의한 납세독촉」 등 징세방법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화남지역에 대한 「인치」에서 「법치」로의 변혁은 경제면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3) 화남지역으로부터의 절세(節稅)루트상품은 중국진출기업에 있어 가격경합의 강적이 되어 왔으나, 5~7월동안의 당국의 감시강화로 인해 거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다.

4) 최근의 엔저로 화제가 되었던 역(逆)이전은 \$1=엔115대에서 잠시 멈춘 감이 있는데, 사 용부품의 로칼 사양화(디스크리트 부품화)에의 대응책에 문제가 있어 간단히 역이전을 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5 베트남

1. 일반개황

— 고성장의 지속과 인플레이 억제 —
 '92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고성장을 지속해 '96년에는 9.3%를 달성하였으며, '97년에도 9.0%가 예측된다. 산업별로는 전체의 약 3할을 점하고 있는 공업(건설업 포함)부문이 '96년에 16% 성장하여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94년, '95년에 10%를 초과한 물가 상승률은 '96년에 4.5%(도시부에서도 10% 이하)로 억제되었고, '97년에도 4~5%로 예측된다.

또 취업인구의 약 8할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1인당 GDP는 300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나 아시아 각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2. 외국투자동향

인가 베이스로의 투자액은 매년 확대를 지속해 '96년에는 84억불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96년의 84억불 중 31억불은 12월 31일에 대형안건(도시개발) 2건의 인가에 의한 것이었으며, 또 '97년 1~4월의 인가금액 베이스에서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의 확대는 일단 멈춘 감이 있다.

'88년의 외국투자법시행이후, '97년 4월까지의 누계투자액은 284억불이었으나, 실행액은 아직

〈표 1〉 일반경제지표

	단위	'95년	'96년	'97년예측
인구	방인	7,536	7,500	7,660
1인당GDP	US \$	252	274	293
경제성장률	%	9.5	9.3	9.0
소지바물가상승률	%	12.7	4.5	4~5
실업률	%	12~16	12~16	12~6

도표1 외국직접투자의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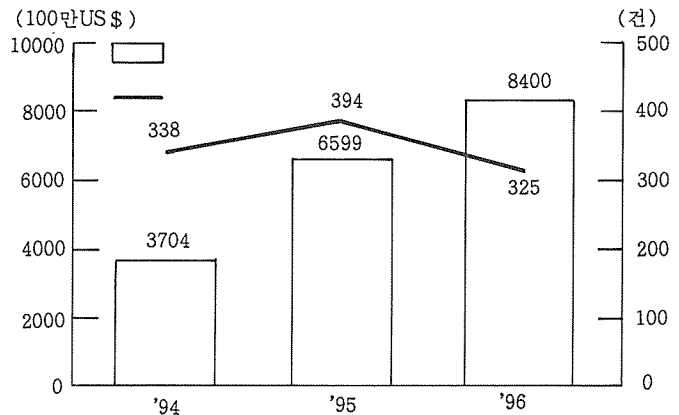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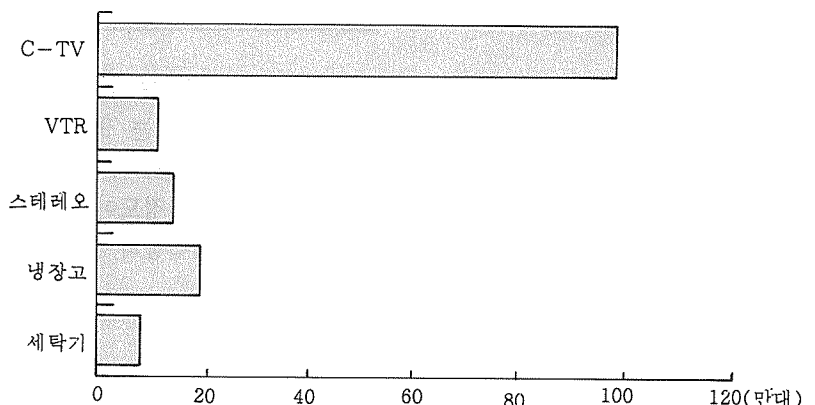


도표2 '96년도내수



약 25% 정도 머물렀다.

투자내용에는 '95년부터 자동차 등의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갔

으며, 투자지역은 남쪽의 호치민 중심에서 북쪽의 하노이로 옮겨가고 있다.

3. 전자산업의 동향

1) 국내수요

C-TV를 중심으로 '96년에 100만대의 수요를 달성하였다.

TV의 보급은 전체적으로는 아직 40%에 머물고 있지만 호치민시 만으로는 80%이다.

기타의 기기는 아직 시장이 작아 급속한 확대를 기대할 수 없으나, 호치민시의 전자상가에는 AV상품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고 도시부에서는 수요가 활발하다.

2) 세트 메이커의 진출상황

현재 생산중이거나 급년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인 일본계 메이커는 SONY(C-TV, VTR, 스테레오) 마쓰시다 전기(C-TV), JVC(C-TV), 산요(세탁기, 냉장고) 등이고 샤프와 히타치도 곧 합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호치민시 및 그 근교를 중심으로 합작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3) 변화하는 국영기업

국영기업(VIETTRONICS)은 조립수탁생산을 해 왔으나, 자금력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계 및 한국계와의 합작기업으로

그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4) 부품동향

부품메이커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그중에서도 한국의 CRT부문이 대대적인 전개를 행한 연간 200만개를 생산하는 것이 눈에 띈다. 그외의 부품으로는 한국계의 전해콘덴서, 일본계의 수지성형 및 권선류 정도이다.

C-TV생산메이커에 있어서는 일본계를 포함해 현지조달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계의 CRT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한국계 CRT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튜너, DY, 전원 등을 현지에서 제조해 현지조달율을 높이는 시도를 행하고 있다.

〈표 2〉 수입관세율

완성품	50%~60%
SKD	38%~45%
CKD	15%
IKD	5%(내재화율20%이상)

5) 생산을 저해하는 밀수

C-TV의 수요는 '96년에 100만대에 달하였으나, 국내 생산은 60~70만대정도이고 또 밀수가 성행해 생산품의 일부는

재고 상태에 있다.

완성품의 수입관세가 50~60%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은 국내 생산품이라도 정규 수입품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나, 주변국가로부터의 대담하고 만성화된 밀수에는 어찌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자산업의 중심인 C-TV의 생산은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침체되어 있다.

4. 금후의 과제

베트남의 전자산업의 발전에 있어 첫번째 문제는 법의 미정비에 의한 자의적인 운용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세금의 경우 돌연 세율이 바뀌거나,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이 부과되거나 하여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투자나 생산의 확대가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7천만을 넘는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은 아세안 중에서는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법이 정비되지 않는 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을 쫓아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